

등록번호 19호 · 1997년 1월 1일 발행 · 1992년 10월 19일 등록 마-2396 · 발행처 : (주) 하이파이 저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88-16 ☎ 553-9743~4

하이파이저널

HI-FI JOURNAL

2

특집 1996 · 이해의 오디오 베스트 10

AV 특집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DVD의 모든 것

화제의 제품 그 매력의 비밀을 쏙! CODA FET-01 · MODEL 20

AV Wonderland 매킨토시 C39 · MC7106

19

1997 제5권 제1호

하이파이저널
HI-FI JOURNAL

19

특 집
AV 특집

1996 · 이해의 오디오 베스트 10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DVD의 모든 것

제5권 제1호
1997



1 9 9 6 이 해 의 오디오 베스트 10

1 9 9 6
THE BEST 10
AUDIOS OF THIS YEAR
Selected By HiFi Journal



- PATHOS **TWIN TOWERS**
- PROAC **RESPONSE 2.5**
- TKC **TCD-1**
- EMPEROR **C-01 · M-30S**
- KRELL **FPB 300**

- UNISON RESEARCH **MYSTERY ONE · SMART 845**
- WADIA **WADIA 27**
- CRISS **CS 401**
- SPENDOR **SP 9/1**
- WILSON BENESCH **ACT 1**

- 심사위원장 : 민석홍
- 심사위원 : 고대진, 고영찬, 김남, 김신규, 나병욱, 나성운, 박상섭, 송영진, 오만호, 이종성, 장경렬, 정우광, 하우성, 현제영
- 예심위원: 고영찬, 김남, 김신규, 장경렬, 하우성
- 시정장소 : 본지 시청실

지난해에도 오디오 업계의 불황은 계속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뛰어난 성능의 앰프, 스피커들이 속속 발표되어 애호가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한편 계간으로 발행되던 본지가 작년년부터 격월간으로 발행되었던 관계로 본지를 통해 소개된 제품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았다.

이해의 오디오 베스트 10의 선정에는 협소하지만, 본사의 시청실이 마련되어 평론가들이 시간에 구애됨 없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선정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선정과정에서 예년과는 몇 가지 다른 원칙이 적용되었다. 예년의 경우 한해 동안 발표된 신제품 중 2인 이상의 평론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제품은 무조건 노미네이트되었다. 다만 한 브랜드에 여러 제품이 있을 때에는 수입원 스스로가 품목을 제한해서 출품하도록 했었다. 그 이유는 한 브랜드의 후보 제품이 많을 경우, 표가 분산될 수도 있고 또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여러 개 선정된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심'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더 두어서 수입원 스스로 교통정리는 필요가 없게 하였다. 보다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3호에서 18호에 발표된 제품으로 평론가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제품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후보에 오를 대상을 2인 이상의 추천 제품에서 1인 이상의 특선 제품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20개의 특선 제품이 자동적으로 노미네이트되었다. 여기에다 평론가에게도 추천을 의뢰, 자신이 추천한 제품 중 20% 범위내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추천을 한 평론가 2인이 모두 국내에 없어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는 예심을 거쳐서 구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골드문트 미메시스 6.5, 네임 오디오 NAC82, 패스 알레프-P MK2 등이 이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예심은 5인의 평론가가 담당했다.

우선 같은 브랜드인 프리·파워 앰프의 경우는 한 제품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데 예심위원들의 견해가 일치되었다. 따라서 패스, 유니즌 리서치 등의 프리·파워 앰프가 자동적으로 노미네이트되었다.

예심의 결과 최종 노미네이트된 제품은 총 36종이었다. 그러나 노미네이트 제품 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기종이 재고 부족으로 기권했다. 결국 최종심사 대상 제품은 31종이었는데 스피커가 12종, 앰프류가 13종, CD플레이어와 DA컨버터가 5종, 튜너가 1종이었다.

예년의 경우 심사에서는 1인의 평론가로부터 10개의 제품에 대한 최종 추천만 받았었다. 그 결과 동점 제품도 나오게 되고, 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 제품에도 찬사를 보낸다'에 해당하는 10 제품을 선정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심지어 2표를 받은 제

품이 여기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 이번 최종 심사에서는 아예 20개의 제품에 대한 투표를 의뢰했다.

예심과 본심은 본사 시청실에서 거의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제품의 수가 많았던 관계로 비교시청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청실을 여러 번 방문한 평론가도 있었다.

베스트 10의 선정기준에는 각 제품의 디자인, 음질, 가격 대비 성능 등이 고려되긴 했지만, 최대한 평론가의 자율에 맡겨졌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레퍼런스 기기 또한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스피커의 경우 프로악 리스폰스 2.5와 윌슨 베네시 ACT 1, 윌슨 오디오의 WITT가 레퍼런스 스피커로 많이 이용되었고, 앰프로는 패스의 프리·파워 앰프, 그리폰의 엘렉트라 L 프리앰프와 크렐의 FFP 300 파워앰프가, CD플레이어로는 프리시드의 CDD·DAP와 와디아의 와디아 27 DA컨버터가 주로 선발되었다.

평론가들의 투표 결과를 집계하자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가장 큰 특징은 국산 브랜드의 약진과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의 선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앰퍼러, 태광, 크리스의 제품들이 뛰어난 성능을 무기로 무난히 베스트 10에 진입했던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산 오디오의 활약이 컸던 한 해였다. 삼성의 앰퍼러 앰프가 그렇고, 애석하게도 베스트 10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미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실바웰드의 경우가 그렇다. 한마디로 '이해의 오디오 베스트 10'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베스트 10 노미네이트 제품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메이커(브랜드)	모델 및 기종	고대진	고영진	김 남	김신규	나병욱	나상운	민석용	박성섭	송영진	오만오	이종성	장경필	정우광	마우성	민재영	계	
1	ACOUSTIC ENERGY	AE 2 SERIES 2(SP)		★		★	★	★			★		★	★		★	★	9	
2	ALIANTE	ONE HEX(SP)		★					★	★		★	★		★		★	7	
3	AUDIBLE TECHNOLOGIES	PLINIUS M12(PRE) PLINIUS SA-100 MK2(POWER)																기권	
4	AUDIOMECA	KREATURA(CDP)								★			★	★			★	4	
5	BOSE	LS-20(SP)	★		★	★		★	★		★				★		★	8	
6	BOW	ZZ-8(CDP)	★	★	★				★	★	★				★		★	8	
7	CAT	SL-1 SIGNATURE(PRE)	★			★	★	★		★	★	★			★		★	9	
8	CELLO	STRADIVARI LEGEND(SP)																기권	
9	CLASSE	CP-50 · CA-150(PRE · POWER)	★	★	★			★				★		★				6	
10	CRISS	CS 401(SP)		★	★	★	★		★	★	★	★	★	★	★	★		12	
11	DUNLAVY	SC-4(SP)																기권	
12	DYNAUDIO	CONTOUR 1.3(SP)	★	★	★		★		★	★			★	★	★			9	
13	EINSTEIN	THE AMPLIFIER MK2(INTE)	★		★		★				★	★	★			★		7	
14	EMPEROR	C-01 · M-30S(PRE · POWER)	★	★	★	★	★	★	★	★	★	★	★		★		★	13	
15	GRYPHON	ELEKTRA-L(PRE)		★	★				★			★	★	★		★	★	8	
16	HARBETH	HL 5ES(SP)			★	★		★	★	★								5	
17	KRELL	FPB 300(POWER)	★		★	★	★	★	★		★	★	★	★	★	★	★	13	
18	LEGACY	FOCUS(SP)																기권	
19	MAGNUM DYNALAB	MD 108(TUNER)	★		★	★					★				★	★		6	
20	MANLEY	SE/PP 300B(POWER)	★			★		★	★	★		★	★	★	★	★		10	
21	MBL	5010C · 8010C(PRE · POWER)																기권	
22	McINTOSH	C712(PRE)	★	★	★	★						★		★			★	7	
23	PARAGON	JUBILEE+JEM(SP)			★		★	★	★	★	★		★	★	★		★	10	
24	PASS	ALEPH-P MK2(PRE) ALEPH 1(POWER)	★	★		★	★		★	★	★	★			★	★	★	11	
25	PATHOS	TWIN TOWERS(INTE)	★	★	★	★	★	★	★	★	★	★	★	★	★	★	★	15	
26	PROAC	RESPONSE 2.5(SP)	★	★	★	★	★	★	★	★	★	★	★	★	★	★	★	15	
27	PROCEED	CDD · DAP(CDP · DAC)	★	★		★	★	★	★			★	★	★		★		10	
28	ROYD	DOUBLET(SP)						★			★		★			★		4	
29	SILVAWELD	SWC-550(PRE) OTL TUBE REFERENCE(POWER)	★	★	★	★	★	★		★	★		★			★	★	11	
30	SONIC FRONTIERS	POWER 3(POWER)		★		★	★			★		★	★	★	★	★	★	10	
31	SPENDOR	SP 9/1(SP)	★		★	★	★	★	★	★	★	★		★		★	★	12	
32	TKC	TCD-1(CDP)	★	★	★		★	★	★	★	★	★	★	★	★	★	★	14	
33	UNISON RESEARCH	MYSTERY ONE(PRE) SMART 845(POWER)	★	★		★	★	★	★	★	★	★		★	★	★	★	13	
34	WADIA	WADIA 27(DAC)	★	★	★	★	★	★	★	★	★			★	★	★	★	13	
35	WILSON AUDIO	WITT(SP)		★		★	★	★	★				★	★	★	★		9	
36	WILSON BENESCH	ACT 1(SP)		★	★		★	★		★	★	★	★	★	★	★	★	12	

선 정 을 마 치 고



고대진 수석심사위원

예년에 비해 스피커보다 앰프류가 더 많이 후보에 올랐다. 이것은 최근에 우수한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들이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였던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예년보다 후보에 오른 작품이 많아져

해마다 그래왔듯이 이 글은 심사위원장이신 민석홍 선생님이 쓰시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모님의 건강 때문에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지내셔야 하셨던 관계로 필자가 대신 쓰게 되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하이파이저널의 신제품 시청 리포트 난에 발표되었던 제품 중에서 베스트 10을 선정하는 작업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1년간 발표된 신제품들을 마무리하고 총결산하는 연례 행사인 것이다. 1995년에도 그랬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오디오계의 흐름이나 동향을 바라보기만 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가 여간 유익한 기회가 아니다. 평론가들이 1차적으로 추천한 우수 제품들을 일시에 두루 섭렵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년과는 달리 후보에 오른 제품이 상당히 늘었다. 이것은 하이파이저널이 계간지에서 격월간지로 바뀌면서 다루었던 신제품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오디오 기기들이 수준이 향상되고 평준화되었다는 점이다.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 시대에 적당히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메이커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보니 일정 수준 이상의 만만치 않은 제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하이파이저널 제13호에서부터 제18호에 실렸던 신제품 중에서 평론가들이 추천이나 특선품으로 뽑은 제품들을 일단 1차 후보에 포함시켰다. 각 기기의 성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평가를 내린 평자와 음질 위주로 시청평을 쓴 평자가 똑같이 추천 이상의 평

점을 매긴 1차 후보 제품들이 무려 90기종 이상이나 되었다. 이 많은 제품들을 일일이 한 장소에 모아서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수많은 후보 가운데서 최종 후보에 오를 제품들을 추려내는 작업은 편집실의 몫이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 글에 앞서 발표된 선정 경위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무튼 선정된 최종 후보는 총 36기종이었다. 여기서 수입상의 사정 때문에 5기종이 기권을 했다. 결국 최종심사 대상 제품은 31기종으로 좁혀졌는데, 스피커가 12종, 앰프류가 13종, CD플레이어와 DA컨버터가 5종, 튜너가 1종이었다. 여기서 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가장 우수한 10 제품이 뽑힌 것이다.

돌보였던 국산 제품의 대활약

예년에 비해 스피커보다 앰프류가 조금 늘었는데, 이는 최근에 우수한 인티그레이티드 앰프가 속속 등장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CD플레이어류는 평년 수준이지만 국산 제품이 1종 당당하게 끼어 있어서 이채롭다. 또 튜너가 결선까지 올라온 점도 이색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성능이 뛰어나기만 하면 어느기종이라도 베스트 10 후보에 얼마든지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다만 최근 몇 년간 AD플레이어를 비롯해서 카트리지 등이 전혀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날로그 애호가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는 아쉬운 일이다.

이번에 최종 예선에 오른 스피커들을 보면 역시 톨보이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면서 디지털 사운드에 대응하

려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다. 앰프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성능이 탁월한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들이 몇 종 눈에 띄었는데, 이들은 메인 시스템으로 사용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에서 앰퍼라라는 하이엔드급 앰프를 개발해서 자랑스럽게 발표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디지털 기기 부문에서는 국내 태광의 TCD-1 CD플레이어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우리 평론가들의 탄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했다.

평론가의 자울에 맡겨진 심사기준

이제 남아 있는 중요한 일은 평론가들이 31기종의 최종 후보들을 놓고 어떻게 10기종을 베스트로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평론가들이 결선에 올라온 제품 가운데서 곧바로 10기종만을 투표하도록 해서 그 결과 상위 득표순으로 베스트 제품으로 뽑았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할 경우 애석 제품의 선정에는 애로 사항이 많았다. 동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다가 불과 2~3표 정도라도 애석 제품에 선정되는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수 투표에 의한 선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즉 평론가 열다섯 분이 엄밀한 시청과 평가를 통해 각각 20기종씩 추천해서 그 결과를 집계하여 평점이 많은 순으로 베스트 10과 애석 제품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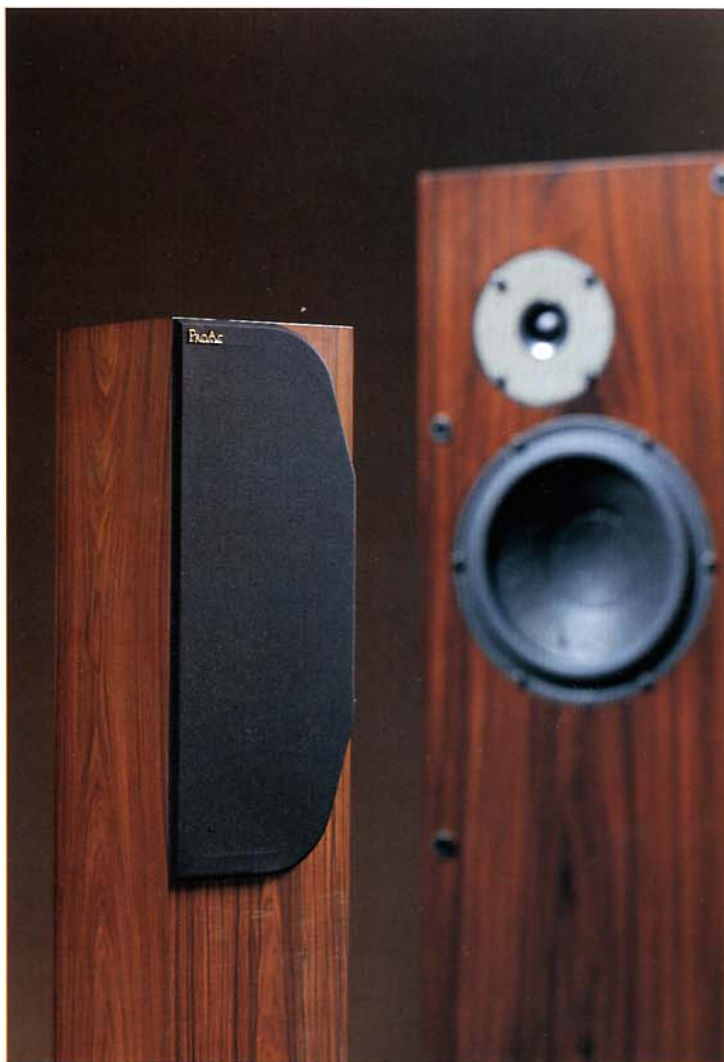
편의상 평가할 때 각 제품의 디자인, 음질, 가격 대비 성능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기준을 정했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최대한 평론가의 자울에 맡겨졌다. 그리고 레퍼런스 기기를 굳이 정해 놓지 않았다. 그러나 스

피커의 경우 프로악 리스폰스 2.5와 윌슨 오디오의 WITT, 그리고 윌슨 베네시의 ACT 1을 레퍼런스 스피커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레퍼런스 앰프로는 패스 알레프 파워앰프와 그리폰의 엘렉트라 L 프리앰프 그리고 크렐의 FPB 300 파워앰프가 주로 이용되었다. CD플레이어는 프로시드 CDD와 DAP, 보 ZZ- 8, 와디아 27 DA컨버터 외에 TKC의 TCD-1도 사용했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과거엔 레퍼런스로 사용했던 제품이 거의 예

외없이 베스트 10에 뽑혔었는데 이번에는 몇 기종이 탈락되는 비운을 맛봐야 했다.

스피커 중 가장 인기를 모았던 프로악 리스폰스 2.5는 2웨이의 볼보이형이다. 컬러레이션이 없는 자연스러운 음색과 청량감이 우러나는 상쾌한 음질이 매력이었다. 어떤 앰프로 구동시켜 봐도 전혀 과장이나 특정 버릇이 느껴지지 않았다. 깊고 은은한 취향에 어울리는 멋진 스피커라고 생각한다.

뜻밖에도 베스트 10에서 밀려난



패스의 알레프 1 파워앰프는 레퍼런 스기로 많이 애용되었고, 필자 자신도 무척 호감을 가졌던 제품이다. 겉모양만 봐서는 사면이 방열판으로 둘러싸인 검은 쇠덩어리 같지만 어떤 스피커와 매칭하더라도 정제되고 절제된 선명한 음을 재생하였다. 그렇다고 중역이나 저역에서 힘이 부치지 않았고 풍성하게 울려주는 여유도 있었다. 여타의 고가 대형 앰프처럼 출력만 높이는 데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스러운 고음질을 추구하는 넬슨 패스 씨의 설계 이념이 스며 있는 듯했다.

패스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우세를 보였던 크렐 FPB 300 파워앰프 역시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앰프의 최대 매력은 두께가 느껴지는 탄탄한 힘에 있다.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강한 에너지가 스며있고 섬세하고 나긋한 것 같으면서도 생생한 파워가 밀려들곤 하는 점이 과거의 근육질적인 크렐 사운드 이미지에서 탈바꿈한 대목인 것 같다.

와디아 27 DA컨버터는 가격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쯤 탐낼 만한 제품이다. 룡런했던 와디아 프로를 업버전시킨 모델인데 실제로 음을 들어보면 그보다 몇 수 위의 수준임을 알게 된다. 와디아 특유의 날카로운 음에 여운과 뉘앙스가 더해진 것 같고 악기들의 질감이 한층 리얼해졌다. 더구나 저역에 탄력이 붙고 한결 촘촘해졌다. 와디아의 최상급 DA컨버터인 모델 9와 비교하면 다소 개성이 강하고 프로다운 냉정함이 느껴지지만 치밀하게 파고드는 듯한 분해능력에선 분명 한수 위다.

아깝게 떨어졌지만 최고의 수준

가장 인상에 남는 제품이 몇 기종

있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는 크리스의 CS 401 스피커와 TKC의 TCD-1 CD플레이어를 꼽을 수 있다. 디자인과 음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선 삼성전자의 앰퍼러 앰프와 파토스의 트윈 타워스였다. 크리스 스피커는 50만원대 가격이면서도 100만원대 스피커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맹랑했다. 스피커의 크기에 비해 스케일이 큰 사운드를 내주면서도 허술한 면을 보이지 않았다. TKC TCD-1은 고급 기종에서 쓰이는 부품들을 과감하게 사용해서 60만원대 가격보다 훨씬 웃도는 음질을 들려주었다. 이 기종을 토대로 하여 보다 고품격의 업그레이드 모델도 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앰퍼러 앰프는 국산 오디오사상 최고급, 최고가인 하이엔드기다. 오래 들어보면 앰퍼러 고유의 음색과 뼈대가 느껴진다.

파토스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는 진공관과 솔리드스테이트 앰프의 장점만 취한 이른바 하이브리드형의 일종인 INPOL 회로를 도입한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CD를 들어봐도 매끄럽고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연마해주는 듯한 음이 그 디자인과 함께 인상적이었다.

그밖에 유니즌 리서치의 진공관 앰프와 스펀도어와 월슨 베네시의 스피커 등이 시선을 끌었던 제품이다.

유니즌 리서치 앰프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진공관의 따뜻한 질감을 투명하고 밀도있게 잘 표현해주었다. 스펀도어 SP 9/1 스피커는 품격을 지키면서도 정감있는 음을 정확하게 재현해주었다. 월슨 베네시 ACT 1 스피커는 인클로저에 카본 파이버를 채택한 독특한 제품이다. 군더더기 없는 세련되고 선명한 음에 매료되어 많

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안다.

애석하게 베스트 10에서 밀려난 제품 중에서 알리안테 스피커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어느 스피커보다도 뛰어났고, CAT의 SL-1 프리앰프는 음악성이 가장 탁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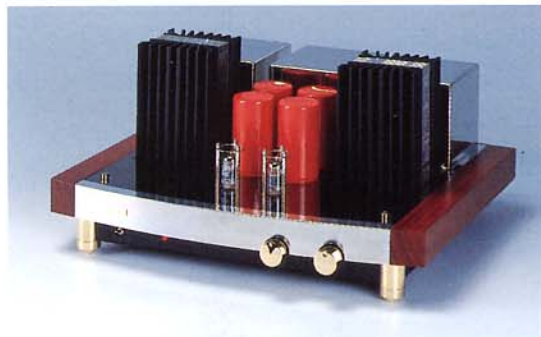
선병질적인 음이 아닌 농후한 음질을 선호하는 필자가 그리폰 앰프에 호감을 가졌던 점도 의외였다. 월슨 오디오의 WITT 스피커가 밀린 것도 나로서는 서운한 일이었다. 동사의 상급기에 비해 투박한 음이라고 하지만 앰프와 매칭만 잘하면 음장 재현이 더 돋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보 ZZ-8 CD플레이어 역시 개인적으로는 호감이 갔으나 이쉽게도 밀려났다. 아마도 높은 가격대가 마음에 걸렸을 듯하다.

그외 실바월드 앰프, 맨레이 앰프, 소닉 프런티어스 앰프, 패러건 스피커, 프로시드 CD플레이어 등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아깝게 탈락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베스트 10에 선정되었다 해도 누구라도 이의를 달지 못할 만큼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

적어도 후보에 오른 제품들은 이미 신제품 시청 리포트에서 평론가들로부터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기기들이다. 그런데 당시에 우수하다고 해서 추천을 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단점이 하나도 없는 완전무결한 제품이나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1년에 한 번쯤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취향이 다른 여러 평론가들이 모여서 단점이 가장 적은 제품을 추려내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PATHOS TWIN TOWERS (인티그레이티드 앰프)

₩3,900,000



● 이상적인 앰프의 증폭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입력단에 진공관을 사용하고, 스피커를 구동시키는 전류를 증폭시키는 데는 Tr가 바람직하다는 생각 아래 설계한 INPOL이라는 독자적인 회로를 채용한 앰프다. 어느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에서 느끼기 힘든 넓고 풍부한 공간감을 재현하면서 섬세하고 투명한 음을 들려준다.(고대진)

●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와 소리에 관련된 기존의 관념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제품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중고역 쪽이 살짝 강조된 듯하나 결코 지나침이 없고, 오히려 명징성이나 투명감을 상당히 높여준다. 전체적으로 음의 윤곽이 분명히 살아나며 특히 중고역의 소리는 탁월하다.(박상섭)

PROCEED CDD · DAP (CD트랜스포트 · DAP(버퍼)) ₩2,600,000/₩2,200,000



CDD(위)와 DAP(아래).

● 기술적 내용이 마크 레빈슨의 No.36, No.37과 매우 비슷하다. DAP의 핵심 기술은 듀얼 밸런스 설계에 의한 이중 차동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이고, CDD는 2배속 CD롬 드라이버와 FIFO라는 지터 감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선이 가는 듯하지만 섬세하고, 고역의 투명함과 분해 능력이 뛰어난다는 점이 특징이다.(나상운)

● 파워앰프와의 직결을 위해서 DAP에 성능이 뛰어난 디지털 아날로그 혼합형 볼륨 제어 장치를 갖추고 있고, HDCD도 재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고음부에서 다소 세밀감이 저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생생한 관악기 소리, 탄력있고 분명한 현악 파트, 탄탄한 저역대 등이 어느 고가품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이종성)

PROAC RESPONSE 2.5 (스피커 시스템)

₩5,000,000



자극감이 은은하게 배어나온다.(김남)

● 실내악곡, 성악곡, 관현악곡 등 어느 장르를 울려봐도 멋진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AB급 앰프를 물려보면 감미롭지만 다소 어수룩이 남는데, A급의 고출력 앰프를 물려보면 이 스피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된다. 음이 확 트이면서 다이내믹 레인지가 한결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성악의 뉘앙스가 잘 살아난다.(김신규)

ROYD DOUBLET (스피커 시스템)

₩1,450,000



폭이 크며 울림에는 여유가 있다.(나상운)

●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로이드가 내놓은 중형 스피커다. 효과적인 저음 방사를 위해서 2개의 우퍼를 장착했고, 각각의 유닛은 독립된 체임버에 수납되어 있어 명확한 음상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공진이 없어서인지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깨끗한 사운드가 펼쳐진다. 음장감도



Pathos

Twin Towers

1 9 9 6
THE **BEST 10**
AUDIOS OF THIS YEAR
Selected by NAB Journal

1 9 9 6 이 해 의 오 디 오 베 스톱 1 0



Pathos

₩3,900,000

- 실용출력:30W+30W(8Ω)
- 입력단자:PHONO, CD, AUX, TAPE
- 입력 임피던스:100kΩ ●톤 컨트롤:없음
- 밸런스 조정:없음 ●SN비:90dB
- 사용진공관:12AX7(ECC83)x2개
- 크기:W49xH25xD47cm ●무게:45kg
- 수입원:리마케팅(929-6053)

장경렬

TWIN TOWERS

독창적인 INPOL 회로채용으로 하이브리드형의 약점을 극복하다

이탈리아의 신생 메이커인 파토스 어쿠스틱스의 트윈 타워스는 이름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여의도의 쌍둥이 고층 빌딩을 연상시킨다. 앰프의 좌우 양쪽에 각각 자리잡고 있는 한 쌍의 방열판이 마치 쌍둥이 빌딩같이 생긴 데다가, 앰프 뒤쪽 중앙의 전원 트랜스 및 좌우 채널용 파워 인덕터와 어우러져 아주 멋지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의 윤곽을 연상시킨다.

한편 앰프 전면 중앙부에 있는 2개의 진공관과 방열판 사이에 있는 4개의 전해 콘덴서가 직선으로 이루어진 전체의 윤곽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처럼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이 앰프는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을 들려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아주 꼼꼼하게 설계되고 제작된 멋진 앰프인 것이다.

진공관과 트랜지스터의 방열을 위한 히트 싱크가 함께 있다는 점에서 이 앰프가 이른바 하이브리드형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하이브리드형 앰프는 진공관 앰프의 장점인 음악성, 그리고 트랜지스터 앰프의 장점인 힘과 저왜율을 모두 살리기 위한 것으로, 많은 오디오 메이커들이 이런 하이브리드형 앰프를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진공관과 트랜지스터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기대했던 '잡종 강세'가 아닌 '잡종 약세'가 나타나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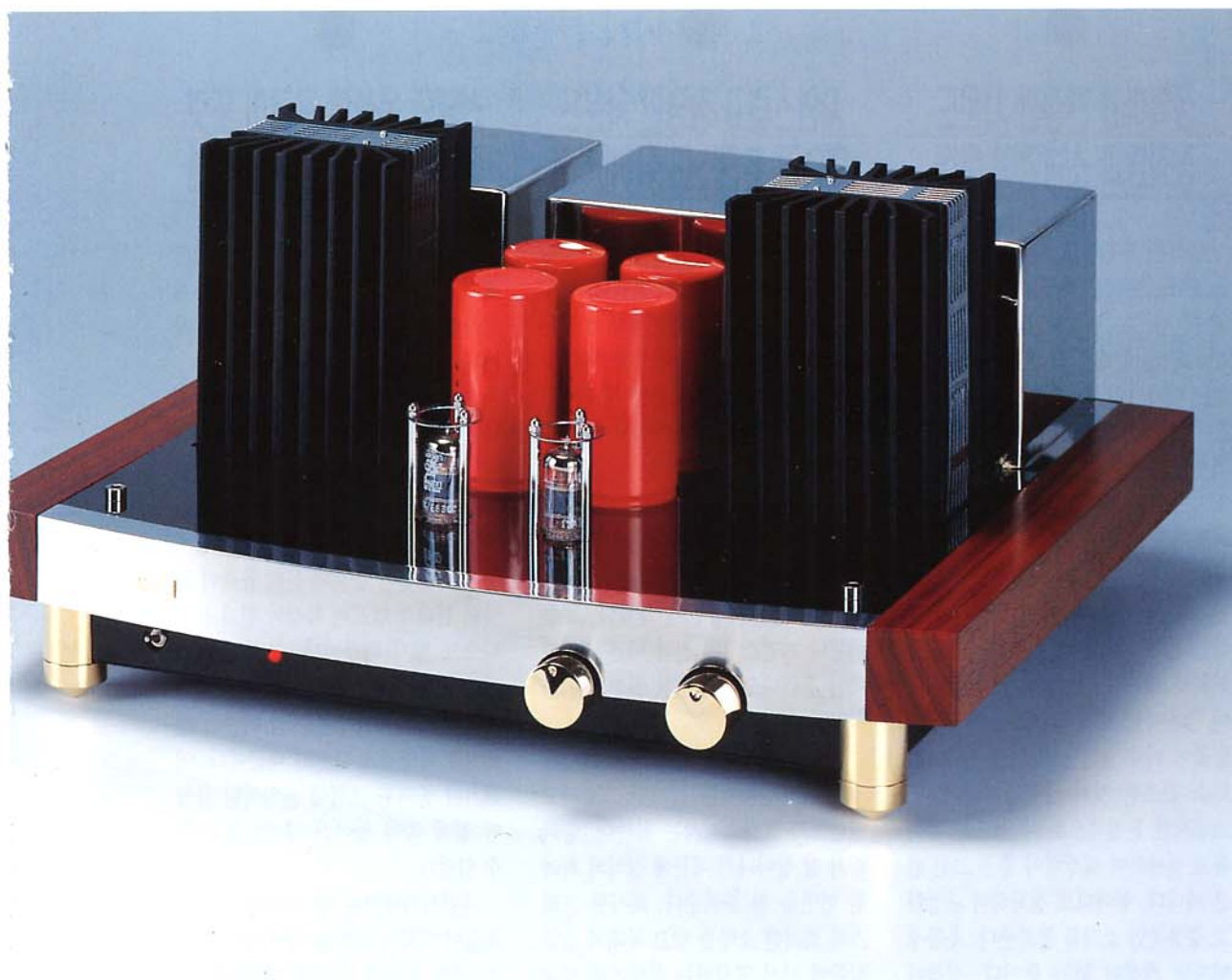
린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앰프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파토스 트윈 타워스는 이러한 유보적 태도를 신뢰와 열광으로 바꿔 놓은 보기 드문 앰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애호가들의 태도를 바꿔 놓게 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INPOL이라는 특수한 회로 개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파토스 어쿠스틱스가 채택한 INPOL 회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는다.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는 앰프 출력 전압의 약간을 입력단에 보냄으로써 입력 신호의 일부를 차단하는 것으로, 앰프의 이득은 떨어지지만 앰프 자체가 유발하는 신호의 찌그러짐과 잡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를 감소시켜 댐핑 팩터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을 희생하면서까지 트윈 타워스에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배제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회로가 어쩔 수 없이 음의 자연스러움과 선명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포기할 경우 아무리 설계상으로 뛰어난 앰프라 하더라도 신호의 찌그러짐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파토스 어쿠스틱스가 고안한 회로 개념이 앞서 말한 INPOL인 것이다.

추천

고대진 고영찬 김남 김신규 나병욱
나상운 민석홍 박상섭 송영진 오만호
이종성 장경렬 정우광 하우성 현제영



INPOL 회로의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은 신호의 찌그러짐을 극소화하기 위해 출력단에 싱글 엔디드 방식으로 3개의 반도체 소자를 병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전압상의 이득을 하나도 얻지 않은 채, 스피커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류상의 이득은 필요한 만큼 얻게 된다. 또한 출력단 반도체 소자의 에미터에 대형 파워 인덕터를 사용함으로써 출력 임피던스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INPOL 회로의 또 다른 특징은 입력단에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인데, 그 이유는 진공관의 음색을 살리고 동시에 신호 전압을 극대화하는데 진공관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진공관의 음색을 살리면서도 반도체 소자의 힘을 발휘하는 앰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메이커측의 설명이다.

채널당 30W의 출력을 내는 순 A 급 앰프인 트윈 타워스에는 구리로 피복된 은선을 신호 경로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도금된 입출력단자를 채용했다. 앰프의 몸체에는 두툼한 알루미늄판을 사용, 뛰어난 차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듯 회로 및 부품에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트윈 타워스의 성능은 파토스 어쿠스틱스의 기대는 물론 오디오 애호가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필자 역시 이 앰프의 선명하면서도 따뜻하고 차분한 음색에 매료되었고, 넓고 깊은 사운드 스테이지, 생기와 힘이 있으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사운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음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다는 느낌이 필자의 취향으로는 좀 이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정확하고 단정한 사운드 정직함과 소박함이 특징

음질은 물론이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앰프 콘테스트라도 개최한다면 단연 이 앰프는 입상할 것이다. 로마의 분수대 옆에 빨간 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아가씨가 연상된다. 그러나 음질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매우 중용적인 음질이다. 그래서 심심하기까지 하고 때로는 건조한 맛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을 받으면 소리가 점점 더 매끄러워진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앰프가 출력이 작아 중용적인 맛이 날 수도 있다 싶어 능률이 아주 높은 스피커로 바꿔보면 다소 건조한 맛이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앰프는 감미롭고 섬세하며 해상력이 좋은 그런 편은 아니다. 한마디로 정확하며 단정하고 중용적인 소리를 들려준다. 우등생이지만 개성이 없는 편이다. 성격이 좀 심심한 분들이 쓰기에 안성맞춤일 것이다. 게다가 A급 앰프인 탓에 열이 굉장히 난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화장기있는 소리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는 화장하지 않은 여자들을 보면 질색이다. 마찬가지로 전혀 화장기가 없는 소리를 싫어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이 앰프를 좋아하는 것은 건초더미 같은 매마른 음질 속에서도 이상한 정직함, 소박함 등이 향기처럼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매끄럽지 못하다는 불만 속에서도 마치 보리빵 같은 맛이라고나 할까.(김남)

자연스럽고 청명한 사운드 대역간 밸런스도 뛰어난 편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음질에 일단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완벽한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라면 구태여 고가의 분리형 앰프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을하늘이나 설악산 깊은 계곡의 물처럼 아무 것에도 가려지지 않은 청명한 음, 그 깨끗함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워 전혀 다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처럼 신선함을 선사한다.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라서 그런지 저역이 풍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중역대가 잘 살아나기 때문에 성악의 화려한 면면을 잘 보여준다. 화사한 드레스에 화려한 조명을 받고 무대의 중앙 앞쪽에 서서 열창하는 성악가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출력이 30W밖에 되지 않아 스피커의 구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었지만, 베스트 10에 선정된 모든 스피커를 부담없이 울려주어 출력 수치와 관계없이 구동 능력 또한 훌륭한 것 같다. 재즈를 걸어 보아도 별로 나무랄 데는 없는데, 너무 정제된 사운드여서 재즈만의 흥분된 분위기 연출에는 조금 인색함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진공관과 트랜지스터의 장점만을 취한 이 앰프에 저역이 풍성한 스피커와 인연을 맺어준다면, 이처럼 명징하고 품위있는 음을 얻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나병욱)

선명한 음색에 윤곽이 또렷 음의 무게 중심은 중고역에

파토스의 이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를 듣고는 그 음질 특성을 정확하게 묘사해 줄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는 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고심해야 했다.

고역이 곱고 예쁘다는 점에서는 3극관 앰프의 음색을 떠올리게 하지만, 옛날 3극관 앰프들이 들려주는 음색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아기의 통통한 살집 같은 부드러움을 지님과 동시에 선명한 음색에 음의 윤곽이 또렷한 현대적 앰프의 특성이 짙게 풍겨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느 앰프에서도 듣기 힘든 독특한 울림이어서 컬러레이션이 들어간 기존의 앰프와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중역과 고역에 음악적인 음영이 짙게 녹아 들어간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대편성곡에서는 양 스피커 사이로 초점이 또렷이 맺히는 식이 아니라 듣는 이의 주위에 소리가 가득 펼치는 식으로 전개된다. 음의 무게 중심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이것은 아마 이 앰프가 A급이지만 출력이 30W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편성곡에서는 걸맞는 힘을 밀어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리라. 하지만 이러한 미진한 점은 크렐이나 앰퍼러와 같은 분리형 고급 파워앰프들과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나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감안하도록 하자.

능률이 높은 고음질 스피커와 잘 매칭시킨다면 이 앰프로서도 저역에서 충분한 힘과 다이내믹을 얻어내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오만호)

레코드 평론가의 시정평

힘도 충분하고 울림의 폭도 뛰어나 보컬의 재생에서 표현력이 돋보여

먼저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이 눈길을 끈다. 몇 장의 CD를 겹쳐 생각과는 달리 복고풍의 소리가 아닌 현대적인 사운드를 들려주었다. 힘도 충분하고 울림의 폭도 뛰어났다. 한마디로 완전한 진공관의 소리는 아니었다. 정말 적당히 진공관의 소리와 T_r 소리가 섞인 듣기 좋은 소리였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가 열창하는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에서는 뉘앙스와 정감이 뛰어났으며 아티큘레이션도 잘 표현해내고 있다.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반주는 말 그대로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영롱한 소리였다. 관현악곡이나 협주곡보다는 예술가곡 쪽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음 재생력이 뛰어난 앰프다. 특히 피아노의 터치에서 탄력감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으며 격조있는 음악을 들려 주었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소리이지만 음악성에 있어서는 베스트 10에 선정된 더 고가의 다른 앰프에 비해 약간 떨어진다. 또한 대역간의 상호간섭이 약간 생기는 듯해서 대편성의 관현악곡에서는 조금 혼탁하고 어수선했던 느낌이다. (김동호)

심도있는 음악성 연출이 돋보여 기계가 아니라 연주가를 만난 듯

스피커를 가리는 조금은 까다로운 앰프이나 마음에 맞는 스피커를 만나면 심도있는 음악성을 연출한다. 디자인도 독특하고 매력적인 앰프다. 이 앰프의 설계상 특징은 트랜지스터와 진공관의 장점만을 이용했다는 점인데, 필

자의 느낌으로는 두 가지 소자의 좋은 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색다른 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윌슨 베네시 스피커와의 조합에서는 기계라는 의미를 초월하여 한 연주가의 존재를 만나는 듯한 인상이었다. 게하르트 오퍼츠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면 이 피아니스트의 새로운 거장적 음악성을 발견할 수 있다. 파바로티가 부르는 '돌아온 제비'에서는 서정성의 극치를 느낄 수 있었다.

좋은 소리를 내주는 기기들이 넘쳐나는 요즘에 음악과 연주의 본질을 느끼게 하는 차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앰프다. 이 앰프와의 만남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김문철)

투명한 음색에 풍부한 현장감이 중고역의 표현력은 특히 돋보여

전체적으로 투명한 음색과 풍부한 현장감이 인상적이다. 특히 빼어난 중고역의 재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관현악곡이건, 독주곡이건 명징한 고음역이 현장감있게 전달된다. 프랑스와가 연주하는 쇼팽의 '야상곡'에서는 아름답게 펼쳐지는 멜로디 라인을 너무도 감미롭게 들려준다. 요훔이 지휘하는 브람스 교향곡 제3번의 촉촉한 바이올린 음색은 가히 파토스만의 자량이라 할 만하다. 말러의 교향곡 제2번에서는 첼로와 베이스의 저역이 다소 왜소하게 들리는 듯하지만, 중고역의 건실함은 이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다. 또한 목관의 섬세한 음색이 매우 만족스럽고 특히 플루트의 투명한 음색은 더욱 강조되어 화려함을 더해준다. 합주에서도 각 파트의 소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분리도가 뛰어나며 실황녹음 CD에선 생생한 현장의 열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저역이 훌륭한 스피커와 매칭시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앰프다. (양진모)

